

“쿨링 효과로 열대야 이긴다”... 여름 침구 불티

세사 아이스쿨링 매출 3배 경증 한 개 20만원 텀퍼 베게도 인기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냉감용 침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일부 제품은 완판 행진을 보이는 등 침구업체가 ‘열대야 특수’를 누리고 있다.

28일 웰크론에 따르면 침구 브랜드 세사와 세사리빙이 선보인 ‘세사 아이스쿨링’과 ‘세사리빙 아이스터치’ 최근 3개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 세사 아이스쿨링과 세사리빙 아이스터치는 무더위를 겨냥해 슈퍼 냉감 소재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을 적용한 침구다.

웰크론 관계자는 “아이스 침구는 높은 열전도율을 지닌 소재를 사용해 열을 빠르게 흡수하고 배출한다”며 “열화상 카메라로 열전도율을 측정할 결과 원단이 피부에 닿은 직후 피부 표면 온도가 7-8도 가량 내려갔고 원단에서 손을 떼면 3분 뒤에는 원단 표면 온도가 5도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열대야 등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올해 내놓은 제품이 완전 판매되는 한편 대부분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열대야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이다. 서울의 경우



이브자리 모던라인



세사리빙 아이스터치

지난 20일 밤부터 8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 인천 11일, 제주 10일 등 열대야는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제주에선 7월 중 3분의 2 이상 열대야가 나타났다.

이브자리 제품 중에선 여름용 차렵 3중 모던라인-프리티가든-오트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 이들 제품은 모두 이브자리의 ‘에코 휘바’ 기술을 도입해 냉감 기능을 강화한 침구다. 모던라인과 프리티가든은 100% 모달 섬유 원단을 사용했다. 너도밤나무 펄프로 만든 모달은 통기성, 수분 조절력, 청량감이 좋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오트는 100% 인견 소재로 제작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열을 흡수하는 특성의 자일리톨과 녹차 추출물을 원

단 표면에 가공 처리하는 에코 휘바 기술이 침구에 닿는 피부 온도를 낮추고 차가운 감촉을 높여준다”며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텀퍼도 ‘열대야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달 3일 선보인 열대야 전용 스마트쿨 베개는 개당 가격이 20만원을 넘지만 한 달도 안 돼 1000개 넘게 팔렸다. 스마트쿨 베개는 잠잘 때 발생하는 과도한 열기를 흡수하는 기술이 적용됐다. 잠자는 자세에 따라 오리지널, 밀레니엄, 컴포트 등 3종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텀퍼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이 팔리고 있어 일부 제품은 재작됐다. 오트는 100% 인견 소재로 제작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열을 흡수하는 특성의 자일리톨과 녹차 추출물을 원

김병근 기자

빛으로 뇌질환 고치고 시가 우울증 치료

정부, 한양대 KIST 연구팀 지원
몸에 심는 전자 약 연구 진행
빛으로 신경세포 활성화 조절

스마트폰 앱으로 우울증 진단
병원 시스템과 연계... 의사 처방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인 ‘코로나 블루’를 집에서 진단, 처방, 치료받을 날이 머지않았다. 정부 지원으로 우울증 자가 진단부터 치료까지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다. 디지털 치료제에 적용할 인공지능(AI) 수준을 높이거나 전자약을 몸에 심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3세대 치료제’ 개발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AI로 집에서 우울증 맞춤 치료”
지난해 우울증 등 기분 장애 질환으로 진료받은 국내 환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77만781명에서 101만6727명으로 5년 만에 31% 증가했다. 환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선뜻 병원에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 시스템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는 배경이다.

김형숙 한양대 인텔리전스컴퓨팅학부 교수팀은 최근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정부에서 140억원, 민간에서 149억원을 투자받아 2024년까지 디지털 치료 플랫폼을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당 플랫폼이 상용화되면 게임을 이용해 우울증 예방과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구진은 병원 시스템과 연계해 의사 진단-처방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일반인은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아 혼자서도 우울증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다.

연구진이 가장 공동이고 있는 연구는 바이오나 제약 기술이 아니다. 데이터 분



한양대헬스케어센터의 한 연구원이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위해 게임 속 캐릭터에 자신의 행동을 인식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우울증 예방·관리하는 국산 디지털 치료제 개발 현황

자기진단 앱 이용해 비대면으로 우울증 관리
시 활용해 개인 맞춤형 디지털 치료 콘텐츠 제공
병원과 연계해 환자에게 의사 진단·처방 지원
연구기관 김형숙 한양대 인텔리전스컴퓨팅학부 교수팀
개발기간 2024년 상용화 목표
지원규모 정부 140억원, 민간 149억원

석을 위한 클라우드 구축과 AI 고도화 작업이다. 플랫폼으로 확보한 우울증 진단 데이터를 표준화한 뒤 AI가 이를 분석해 맞춤형 디지털 치료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김 교수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생태계를 동시에 구축해야 디지털 치료제 플랫폼을 상용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AI 모델을 도출해 데이터 품질 관리 수준을 유지하는 게 개발 성공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선 충전한 전자약으로 뇌 질환 치료
정부는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 전략을 바꿨다. 그간 부처별 기초연구 단위로 진행하던 연구개발(R&D) 사업을 바이오나 제약 기술이 아니다. 데이터 분

대했다. 원천기술 확보와 제품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 중소기업 위주로 진행하던 기존 산업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뚜렷한 3세대 치료제 선도 기업은 눈에 띄지 않지만 전자약에 쓰이는 의료용 전극 시장에서 3M, 메드트로닉, 콘메드 등 3개 미국 기업이 세계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원천기술 연구는 이미 궤도에 올랐다. 성공권대는 정부 지원을 받아 체내에 삽입한 전자약을 이용해 빛으로 신경세포 활성을 조절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동물용 제품을 우선 내놓은 뒤 향후 인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자약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대는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전자약 플랫폼을 연구하고 있다. 2023년 동물 대상 임상에 돌입하는 게 목표다.

조일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뇌과학연구소장은 “3세대 치료제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에서도 수술 없이 뇌 질환을 치료하는 전자약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상용화까지 고려해 R&D 전략을 재편하면서 의료용 전극 등의 부품과 원천기술을 자체 확보할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티움바이오·SK플라즈마, 혈우병 치료제 공동 개발

플라즈마, 티움 등서 1100억 유치
기술이전 받고 상장 나설 듯

희귀 질환 신약 개발 회사 티움바이오가 SK디스커버리의 자회사 SK플라즈마 지분 8%를 취득한다. 티움바이오의 혈우병 치료제 기술이전 후 주축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티움바이오는 SK플라즈마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8%를 취득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투자금액은 300억원이다. 이번 유상증자엔 SK디스커버리와 한국투자파트너스도 참여한다. 각각 500억원, 300억원을 투자한다. SK디스커버리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케미칼 등의 제약·바이오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SK플라즈마는 2015년 SK케미칼에서 분할된 회사다. 국가 필수약품으로 지정된 혈액제제 제품을 생산한다. 경북 안동공장에 60만L 혈액제제 생산 규모를 갖추고 있다. SK플라즈마는 유상증자와 함께 개발전문사업(NRDO)에 진출한다. 후보물질은 처음부터 발굴하는 대신 외부에서 도입한 물질의 임상을 받아 사업화해 나서는 것이다.

업계에선 SK플라즈마의 ‘1호 도입’ 물질이 티움바이오의 혈우병 치료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티움바이오는 해당 혈우병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1상을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혈우병은 혈액응고 인자가 부족해 지혈이 안 되거나 오래 걸리는 출혈성 질환이다. 김훈택 티움바이오 대표는 SK케미칼

재직 시절 국내 1호 바이오 신약 엠스틸라(혈우병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인물이다. 엠스틸라는 2009년 세계 최대 혈액제제 회사인 호주 CSL베링에 기술수출했다. SK플라즈마는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엠스틸라의 한국 판권을 갖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K케미칼 혁신연구개발(R&D) 센터장을 지낸 김 대표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돼 있다”며 “주후 광범위한 공동 연구와 후보물질 이전, 지분 교환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플라즈마는 내년엔 기업공개(IPO)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유상증자에서 이 회사의 기업가치는 약 3700억원으로 평가됐다. 티움바이오의 혈우병 치료제가 신규 신약 후보물질로 편입될 경우 회사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김우영 기자

항암치료로 탈모 겪는 친구 위해 만든 샴푸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모담 ‘샴푸바’ 허브 성분 20여종
일 흡소핑서 하루 20억원 매출

지난 1월 21일 일본 Q흡소핑 창립 20주년 기념 특집 방송에 한국 중소기업 모담글로벌네이처의 천연발효 샴푸바가 전파를 탔다. 인공 화학성분 첨가물 없이 100% 천연성분만으로 만들어진 고체 샴푸바의 효능 설명이 이어졌다. 샴푸바 사용 첫 날부터 배수구로 빠지는 머리카락 개수가 조금씩 줄어든 것을 카메라 앞에서 증명했다. 이날 하루 만에 모담 샴푸바(사진)는 2억엔(약 20억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고은주 모담글로벌네이처 대표는 “국내 시장에서는 인지도가 부족해 판로를 개척하기 어려웠다”며 “해외 시장을 주로

공략한 것이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모담 샴푸바는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선정한 차세대 세계 일류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수출액이 2019년 48만달러에서 지난해 133만달러로 두 배 이상 증충됐다”고 했다.

모담 샴푸바는 100% 천연 성분으로 제조한 고체 샴푸바다. 향염, 향산화 효과가 좋은 약재 대자호를 비롯해 아성초, 녹차, 회향, 솔잎, 박하, 감잎, 흑삼, 흑마늘, 로즈메리, 모리가 등 천연 허브 20종의 성분이 포함됐다. 3개월 이상 발효 숙성 과정을 거쳐 주요 성분의 효능을 높였다. 고 대표는 “발효 기술과 비누 생산 공정의 한국과 미국 특허를 보유한 것은 물론 안전성과 탈모 방지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도 한국피부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해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고 대표는 모담 샴푸바 개발로 한국여성발명협회 동상을 받기도 했다.

고대표는 항암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



던 친구를 돕다가 제품을 개발했다. 1952년 생인 고 대표는 아로마테라피 자격증을 갖고 피부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다. 고 대표는 “항암 치료로 인해 두피가 손상되면서 탈모를 걱정하는 친구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고 말했다. 오랜 연구 끝에 각종 약재 성분의 향염 효과를 내면서 거품이 잘 일어나고 수분에 쉽게 물러지지 않는 천연 비누를 개발했다. 시범 삼아 만든 제품이 입소문을 타자 고대표는 63세였던 2014년 창업을 결심했다.

고 대표는 해외 시장 공략을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다. 그는 “까다로운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샴푸바 외에 마스크팩 등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여 미국, 동남아시아 등 수출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진원 기자

대한민국 ESG 경영포럼
제2기 ESG 경영 실무가이드과정

경영활동의 건전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ESG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임과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ESG 경영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할 기업의 의사결정자와 실무자들은 장단기 전략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ESG 경영포럼에서는 현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ESG 경영기획과 추진에 관한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설 운영합니다. 기업의 ESG 담당 실무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p>참여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ESG 관련 업무 담당자 초, 중급 간부 · 기타 ESG 경영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분 <p>프로그램 요약</p> <p>모집인원 35명 내외 교육비용 100만원 (1인, VAT없음) 교육일정 2021년 8월 19일~9월 16일 매주 목요일 14:00~18:00 (총 5회 19시간) 접수마감 2021년 8월 17일(화) 교육장소 한국경제신문사빌딩 3층 한경아카데미 강의장 교육방법 집체 교육 + 비대면 교육 병행 예정 ※ 코로나19에 따라 교육장소가 변경되거나 또는 전연 온라인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주요 강사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문두현 부원장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김혜성 변호사 법무법인 김연정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최준영 전문위원 법무법인 유은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김정훈 수석위원 IBS컨설팅파트너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고순현 상무 에코엔비즈니스 </div> </div> <p style="font-size: small;">이 외 전문 분야 교수님, 현업 담당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강사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교육 일정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차 (8월19일) 국내 ESG 현황 - ESG 경영 트렌드와 기업의 동향과 사례 글로벌 ESG 현황 ※ 발표자 언어영어 - ESG 경영의 핵심사례 기업의 이해관계와 ESG 전략 - 협력사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과 사례 ● 2일차 (8월26일) 국제적 사례를 통해서 본 기업의 ESG 과제와 대응 - 국내외 기업의 ESG 대응 전략 국내외의 ESG 경영평가 현황 - ESG 평가와 동향 ● 3일차 (9월2일) ESG 실무 (E) I 기업의 환경 경영전략 - 탄소중립 등 국내외 환경 규제동향 - 기업의 환경경영 추진방안 ESG 실무 (S) II 기업의 사회적 이슈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창출 동향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전략 ● 4일차 (9월9일) ESG 실무 III ESG 평가 대응 가이드 - ESG-K 평가모델 소개 - ESG 보고서 작성과 관리 ESG 실무 IV ESG 경영전략별 실무가이드 - ESG 현장 실무 가이드 - 평가 분야별 E, S, G 관리 전략 ● 5일차 (9월16일) ESG 실무 V ESG 리스크 및 소송사례 그리고 대응전략 <p>접수 www.hankyung.com/esg 참조 문의 02-360-4049, esg@hankyung.com</p>
---	--

www.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